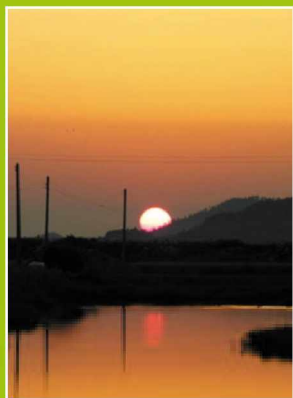


# Contents

October 2006 축산물 품질관리, 안전 및 소비자보호

- 02 - 축산단신
- 04 - 기획특집  
축산물 브랜드 육성
- 06 - 전문가심층정보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 방향
- 08 - 소·등급판정 우수농가탐방  
'형제농장' 김규철 농가
- 09 - 돼지·등급판정 우수농가탐방  
'제일축산' 임광석 농가
- 10 - 업체탐방  
포천축협 '미트빌'을 찾아서
- 12 - 소·돼지가격전망
- 13 - 소·돼지산지및매시장가격동향
- 14 - 등급판정통계자료  
9월중 축산물등급판정 결과
- 19 - 등급판정소식



표지사진 '신안군 암태도 일몰풍경'  
전북지소 과장정종학작

## FTA 쇠고기 양허 가능성 배제 못해

이날 농림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미 FTA 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안전성 문제, 가족분노처리대책, 항생제 안전관리대책, 소브루셀라 대책 등에 대해 집중 포화를 쏘아댔다. 이에 대해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쌀을 제외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FTA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국민과의 약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쇠고기 등 축산물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양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돼 축산업계에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장관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 우리가 제시한 수입위생조건을 미국이 충족시키지 못하면 한 점도 들어올 수 없다면서 한미간 합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위한미국작업장 현지점검등 사후관리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약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 등 SRM이 확인되면 미국산 쇠고기 전체 수입을 중단시키고, 뼈 조각 등 SRM 이외의 물질이 확인되면 해당 수출작업장 수출선적을중단시키겠다고덧붙였다.

소 브루셀라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강제폐기(살처분) 정책의 유지로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항생제와 관련, 수의사 처방제도의 조속한 도입은 현장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강도 높은 항생제 안전관리 대책을추진하겠다고답변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는 지난 13일 농림부를 시작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 대장정에 올랐다.

작년양돈법인체 사육두수 전년대비 13.2% 감소

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출하두수도 242만2천841두로 지난 2004년 대비 5.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육우, 젖소의 경우 각각 2만5천753두, 3천316두로 전년대비 0.9%, 19.3% 증가세를 보였으며 출하두수도 1만1천765두, 391두로 지난 2004년에 비교 15.4%, 43.8%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축산법인사업체 수는 506개로 전년 51개보다 1% 줄어든 가운데 이들 업체의 농업생산 판매액은 8천772억600만원으로 전년 7천766억2천만원에비해 13% 증가했다.

농림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신설

내년 3월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표시가 현행 4종에서 3종으로 바뀌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가 신설된다. 농림부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농업육성법'을 9월 말에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친환경 농산물 인증표시 중 저농약과 무농약은 그대로 사용되지만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의해 분류되는 전환기유기농(1년 이상)과 유기농산물(3년 이상)은 '유기농산물'로 통합된다. 다만 기존에 전환기 유기농에 해당했던 농산물의 경우는 '유기농산물'

전환기)로 표시될 예정이다. 또 축산물의 경우는 유기 축산물에 이어 농산물의 무농약에 해당되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 신설된다이밖에 개정 법률은 인증 유효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유통업자도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인증 취소를 받은 업자는 1년간 재발급 신청을 불허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2회 아시아-태평양축산학회 학술대회(The 12th AAAP Animal Science Congress/대회장 백인기 AAAP회장· 한국동물자원과학회장)가 지난 18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BEXCO)에서 개막, 각국의 축산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간 중심의 친환경축산업 실현을 위한 답안지 작성에 나서고 있다. AAAP 조직위원회(위원장 오상집· 강원대 교수)에 따르면 22일 폐막식을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될 이번 대회에는 2개국 1천2백여명의 참가자들이 '인류의 복지를 위한 축산의 도전'이란 주제하에 무려 1천2백65편에 달하는 논문을 발표, 그 기대를 뒷받침 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지난 18일 개막식에서 윤상기 축산연구소장이 대독한 대회사를 통해 "현재 세계 각국의 축산업은 가축분뇨처리와 악성가축전염병 확산 및 소비자들의 안전축산물 요구 등 매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대회가 당면 현안에 대한 해법 제시를 통해 전세계 축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영사에 나선 허남식 부산시장도

"아시아 10대 국제회의 도시인 부산에서 AAAP 축산학회가 개최돼 영광"이라면서 "신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국가간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국내 축산업 기술 촉진을 앞당기는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사업개발팀 공홍식 박사 등이 참석하였고, 공 박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2개의 논문을 제출·게재하였다.

돈육선물 모의투자대회 시상식개회

이데일리와 선물협회가 주최하고 증권선물거래소가 후원한 돈육선물 모의투자대회 시상식이 10월 10일 선물협회 본사에서 열렸다.

선물협회는 이번 모의투자대회에서 수익률 483%를 기록한 류수진(29, 직장인)씨가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397%의 수익률을 올린 이광엽(37, 직장인)씨가 2위를 차지했으며, 3위는 374%를 기록한 김복석(44, 일반인)씨였다. 1위를 차지한 류씨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으며 2위와 3위에게는 각각 70만원과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이밖에도 돈육농가 부문과 돈육중사자 부문, 일반 투자자부문으로 나누어 시상도 진행됐다. 이번 돈육선물 모의투자대회는 지난 8월 21일부터 9월29일까지 총 6주간에 걸쳐 진행됐다. 총 135계좌가 개설되어 경합을 벌인 이번 대회에서는 하루 평균 2만3568계약이 이뤄졌다. 지난 9월3일에는 거래량이 일일 최대 거래량으로는 최고 수준인 6만4985계약에 달하기도 했다.



문화산책 - 대조영



드라마 대조영을 읽는다! 대하사극 <대조영> 전반부가 전개되는 가운데 드라마 작가의 손으로 빛이낸 맛은 또 이떨지...

2006년 왜 대조영인가!

내국영과 발해를 그리는 일은 고관 안산민족의 역사를 복원하는 일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개역사적통감역과 민족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대제국발해를 세운 원운여전하우리안애이다. 시간을 달려 1300년전의 발해를 읽자. 2000년부터 발한대조영을 읽자. 진국, 변영과 평강, 그리고 평화공공의 이상을 가졌던 대조영은 임용이 없는 우리시대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

작가 : 정영철  
출판사 : 마음의 숲